

대선 끝나자... 흔들리는 '달빛동맹'

국립과학관·치과벨트 등 광주-대구 동맹사업 이상기류 광주시 이달 시장 교차근무 계기 유대관계 재구축 나서

영·호남 대표도시인 광주와 대구시가 지역공동발전을 위해 맺은 '달빛동맹' 사업들이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흔들리고 있다.

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달빛동맹으로 결속을 다져온 광주와 대구는 제18대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88고속도로 조기확장 ▲광주~대구간 내륙철도 건설 ▲국립과학관 운영비 국비 지원 추진 ▲신성장동력 3대 산업 육성 ▲북색내지 및 도시 CDM사업 연계 협력 ▲광주·대구시민 기금 조성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문화예술 및 관광사업 교류 ▲광주-대구 연계협력 발전 ▲청소년·공무원 교류 확대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 도시는 대선 당시 어느 지역에서 대통령이 배출되더라도 영호

남 화합 차원에서 공동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달빛동맹은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의 동맹을 뜻하는 말이다.

하지만, 대구는 대선 이후 광주와 공동으로 추진해온 국립과학관 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 방침을 철회하고, 순수 운영비 40%를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5월 국립과학관 학관을 개관할 예정인 광주시는 대구의 입장 반복으로 연간 수십억원에 이르는 운영비를 부담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두 도시는 그동안 전국 국립과학관이 운영비의 100%를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을 주장해왔다.

대구시는 또 신성장동력 3대 산업 중 하나로, 오는 2017년까지 2016

억원을 투입해 공동 조성하기로 한 미래형 치과산업벨트 구축사업도 최근 들어 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과 손을 잡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치과산업벨트는 광주시가 최초로 기획·추진한 사업으로, 광주는 치과용 소재·부품 생산기술지원센터를, 대구는 첨단 치과의료기기 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특히 최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역 대표 추진 사업 15개를 발표했다. '달빛동맹 공동 아젠다 사업'은 단 한 건도 포함하지 않았다. 대구가 광주와 추진해온 공동 사업들에 대해 선 기수에 나선 것은, 양 도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여준 득표율(대구 80.14%, 광주 7.76%)로 '80대 8'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한 대선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인 대구시가 광주와의 동맹을 통한 현안사업 '몸집 부풀리기'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광주는 힘(?)있는 대구와의 동맹을 강화해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광주시는 특히 이달 중으로 예정된 양 도시 시장의 '1일 교차근무'를 기회로, 유대관계를 재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전국 시·도가 새정부의 정책에 지역현안사업을 포함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라며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된 대구의 경우 새 정부와 코드가 맞다는 판단에 따라 대선에서 저조한 지지율을 보낸 광주와의 동맹보다는 독자사업 또는 충청권 등과 협력하는 게 유리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듯하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lucky@

“핵심 빠진 미래부 만들 필요 없어”

차대통령 대국민 담화 민주 “오만한 일방통행”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새 정부가 국정운영에 어떠한 것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야 대표들과의 회동을 통해 발전적인 대화를 기대했지만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걱정과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부조직 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측은 “오만과 불통의 일방통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뒤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방송진행 핵심기능을 방통위에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 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저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반드시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융합에 기반한 ICT 산업육성을 통해 국가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야당이 우려하는 대표적인 사안을 많이 받아들여 많은 부분에서 원안이 수정됐고 이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만 남겨놓은 상황”이라며 “이것이 빠진 미래창조과학부는 겹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으로 국정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과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데기만 남는 것이고 굳이 미래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야권의 방송장악 음모 주장에 대해선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진도 독저도 22km 해상 어선 전복 선원 7명 실종

어선이 전복돼 선원 7명이 실종됐다. 4일 낮 12시40분경 진도군 조도면 독저도 남방 22km 해상에서 신안선적 어선 9.77t급 대광호(선장 박재원·48·울산시 중구 태화동)가 전복돼 있는 것을 지나가던 상선이 발견, 목포

해경에 신고했다. <관련기사 6면> 이 사고로 배에 타고 있던 선장 박씨를 포함, 선원 ▲진창규(52·목포시) ▲하인권(63·목포시) ▲변명철(45·목포시) ▲홍승완(33·함양군) ▲김성철(37) ▲김동권(45)씨 등 7명이 실종됐다.



122 해경 구조대원들이 4일 오후 진도군 조도면 독저도 남쪽 22km 해상에서 전복된 신안선적 대광호에서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목포해경은 헬기 2대와 경비함 8척과 구조대를 동원해 사고 해역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122 구조대원들은 산채 내로 들어가 생존자를 찾고 있다.

대광호는 지난 2월 21일 신안군 입자도 삼두리에서 출항해 조업중이었으며 오는 21일 신안 입자항으로 입항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해경은 또 선박 하부에 파손 자국이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충돌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김중훈 장관 내정자 전격사퇴

김중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는 4일 “이제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 했던 마음을 접으려 한다”며 내정자직을 전격 사퇴했다. <관련기사 3면>

김 내정자의 사퇴로 새 정부 출범 후 여드레째 내각 구성이 안 돼 국무회의도 열지 못하는 등 국정 운영의 차질을 빚어온 ‘박근혜 정부’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또 향후 정국은 청와대와 여야의 책임론 공방 속에 대처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내정자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1시간 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면담조차 거부하는 야당과 정치권 난맥상을 지켜보면서 제가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 했던 마음을 지킬 수 없게 됐다”면서 이같이 사퇴를 선언했다.

김 내정자는 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과학과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을 생산적으로 융합해 새로운 일자리와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해야 미래를 열 수 있다”며 “박 대통령의 마음

이 절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내정자의 사퇴는 새 정부 각료 후보자 및 지명자 가운데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의 자진사퇴 이후 두 번째다. /박지경기자 jkpark@

신성자동차㈜ www.gj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2013년식 The E-Class

36개월 무이자 금융프로그램 실시

062)226-0001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www.eodeungsancc.com

동반자를 배려한 파격적인 회원권! 정회원 동반자 이용요금의 특혜!!

■ 어등산컨트리클럽 창립회원 모집 (단위 :만원)

구분	개인 A	개인 B	개인 C	가족 A	법인 A	법인 B	법인 C
입회금액	7,000	8,500	13,000	12,000	1억 4천	1억 7천	2억 6천
회원혜택	•정회원 1인 •지정 1인 •동반자 1인	•정회원 1인 •가족 1인 •동반자 2인	•정회원 1인 •가족 1인 (타인가능) •동반자 3인 •년 3%확정금리	•정회원 2인 •가족 1인 (타인가능) •동반자 3인	•정회원 2인 •지정 2인 •동반자 2인	•정회원 2인 •가족회원 2인 •동반자 3인	•정회원 2인 •가족회원 2인 •동반자 3인 •년 3%확정금리 지급

- 광주은행 : 회원권 분양 대출 60% 가능
- 동반자 1부 30%, 2부 25% 할인(동반자 할인의 요금 폭이 지정인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 VIP, VVIP 회원권은 마감, 개인C 마감(전금원납순으로 마감)

어등산컨트리클럽 Eodeungsan Country Club

입회문의 TEL. 062-605-3050

예약문의 TEL. 062-605-3030